

□ 優秀 授業計劃書 현상 모집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교수들 대상으로 수업계획서(syllabus)를 현상 모집한다. 대학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이 공개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응모자격 : 회원대학(4년제 대학) 소속 교수(전임강사 이상)
- 응모기한 : 1994년 2월 15일(화)
- 접수처 :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개발부
전화 : (02) 780-7941, 8310
FAX : (02) 780-8311
- 지원영역 : 대학의 전공 및 교양과목으로 9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과목
- 수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① 수업목표 ② 수업진행 방법 ③ 학습평가 방법 ④ 주요교재 및 참고서적 ⑤ 각 단원별 교과 진도계획 및 내용 ⑥ 수업중강시의 수업에 대한 수강자 반응 및 평가 요령 ⑦ 기타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목
- 심사 및 연구사태금
 - 각 전공 영역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입상작을 선정함
 - 심사결과는 1994년 3월 1일자 교수신문을 통해 발표함
 - 연구보조내역 : 최우수작 1명 150만 원, 우수작 2명 각 100만 원, 가작 3명 각 50만 원, 장려 4명 각 30만 원
- 입상 수업계획서의 활용 : 입상한 수업계획서는 자료집으로 발간, 각 회원대학에 배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수 國內交流 연구지원 계획

우리 협의회는 주요 연례사업인 이 계획은 대학간 협력과 학문교류 증진, 대학의 균형적 발

전 유도, 교수의 학문발전과 연구의욕 고취,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초빙을 희망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타대학의 교수를 초빙하는 '초빙교류'와, 교류 희망교수가 타대학이나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파견교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교류교수 지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교류근무한 일이 없는 자이며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전반기 : 94. 3. 1~95. 2. 28, 후반기 : 94. 9. 1~95. 8. 31), 6개월간 교류도 가능하다. 연락처 : 교육개발부(전화 : 02-780-7941)

□ 제65차 理事會 개최

우리 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제65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94년도 대학관련 예산확보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여기서 정부, 특히 경제기획원측에서 강력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國策大學 육성지원비 400억 원(대학당 100억 원 기준)을 4개 대학에만 집중지원할 경우, 우수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구현에 장애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단 400억 원을 대학재정 지원액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탁토록 하여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모았다.

또한 대 정부 건의사항 협의에서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설립인가권을 갖는 4년제 産業技術大學 법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여기서 이 법안은 교육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대학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며, 설립주체의 불명확성에 따른 감독 및 책임문제 등을 가져와 결국에는 또하나의 부실대학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목적과 계획의 타당성 결여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현재 보류중인 이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이곳에 투자할 재원으로 차라리 기존대학을 지원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의 監事인 김형욱 총장(제주대)의 총장직 임기만료에 따라 제주대 신임 高長權 총장이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하였다.

□ 民主黨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

한편, 이날 65차 이사회에 이어서 民主黨 李基澤 대표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및 교육위원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敎育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는 교육 투자를, 정당은 교육을 뒷받침하고, 대학은 자정노력과 함께 새로운 실천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韓國私立大學總學長協議會 임시총회

우리 협의회 산하 사립대학총학장협의회는 지난 11월 12일 팔레스호텔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 총학장들은 94년도 등록금을 10~15%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별(권역별) 대학기획실장협의회를 통해 인상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私立大 改革發展小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립대 국고지원문제가 있어서는 사립대 국고보조금이 학교 총운영비의 2% 수준에 불과해 외국의 20~30%에 비해 크게 미흡한 만큼 10% 수준인 2,500억 원의 조기달성을 위해 94년도에는 최소한 1,000억 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민간자산인 만큼 이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려는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안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 제66차 理事會 개최

우리 협의회는 지난 12월 13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현안문제에 대한 건의내용 및 결과보고, 대학종합평가사업 추진현황보고 및 94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大學評價認定委員會 제3차 회의(93. 10. 15)의 결정에 따라 회원대학별로 大學綜合評價認定制 실시 희망년도에 대한 조사·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94년도 : 14개 대학(4 : 지방 캠퍼스수) △ 95년도 : 14(1) △ 96년도 : 19 △ 97년도 : 33(6) △ 98년도 : 48(1) △ 99년도 : 23(1)

□ 극동지역의 大學間 協力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우리 협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극동지역의 대학간 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박춘호 교수(고려대), Beryozkin 교수(Far-Eastern State 대, 러시아)의 기초강연에 이어 '중국 고등교육에서의 국제교류와 협력', '아·태지역의 대학이동의 확대', '기술과학 분야의 교육협력 증진'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研究報告書 발간

◎ 우수 수업계획서의 발굴 및 확산 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과과의 수업체계의 합리성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개설중인 각종 강좌의 우수 수업계획서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우수 수업계획서의 본질, 발굴, 확산의 의의, 확산방안 등이다.
연구자 : 권기욱, 백정하(대교협 연구원)